



88고속도로 넓힌다

담양~대구 142.6km 4차선 확장...2016년 완공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광주~대구 구간 ‘88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

영호남 화합과 88올림픽 유치에 촉하하는 의미에서 지난 1980년 착공, 84년 완공된 88고속도로는 전국 25개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한 왕복 2차선 도로로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은 ‘마(魔)의 도로’라는 악명을 떨쳤다.

9일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와 전남지사 등에 따르면 88고속도로중 2차로 구간인 담양~대구 성산간 142.6km 구간을 사업비 2조 4천864억원을 들여 내년 말께 4차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 도로공사는 교통량과 경제성을 분석해 4차로 확장공사를 우선 순위에 따라 2단계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공사는 담양~남원간 35km와 경복 거창~송산간 44km 등 2개 구간(동시착공) 총 79km로 1조4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8년 착공, 2012년 완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63km 구간은 2011년 착공해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지난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최근 실시계획과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다. 또 올 초부터는 토지조사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88고속도로는 대구 옥포 분기점에서 담양 고서분기점까지 총연장 183km 구간 중 옥포분기점에서 성산간 12km와 고서분기점에서 담양간 17km 구간만 지난 2006년 말까지 4~6차로로 확장됐을 뿐 나머지 구간은 폭 13.2m의 왕복 2차선에 불과한 상태.

특히 중앙분리대가 없고, 도로 전체의 60%가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탓에 급경사와 굴곡이 심해 운전자들에게는 ‘죽음의 도로’로 불려왔다.

이 같은 악조건 때문에 88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16년째 최고 치사율(1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총사망자 숫자) 도로라는 오명이 붙어 있다. 88고속도로의 경우 지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6년간의 치사율은 31.7명에 이른다. 전국 고속도로 평균 치사율(11.6명)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같은 기간동안 경부고속도로의 치사율은 9.8명, 호남고속도로 16.0명, 남해고속도로 12.2명, 중부고속도로 10.9명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승연 회장 사전영장 신청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

서울경찰청은 9일 오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복폭행’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흉기 등 사용 상해·공동 감금·공동 폭행·공동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8일 차남(22)이 서울 청담동 G가라오케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도(34)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과 사택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다수의 인력을 동원해 S클럽 종업원 4명을 차에 태워 청계산으로 끌고가 쇠 파이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2/3반영’ 첨예대립

한나라당 강제집 대표가 제안한 대선 후보 경선 규칙 중재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나라당 내분 사태가 예상된다.

태가 분당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칙권에는 경선권을 돌려싼 한나라당의 내분이 분열의 길로 연결된다

면 전체적인 대선 구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제집 대표는 9일 선거인단 확대 및 투표율 제고, 국민투표율의 하한선 보장을 통한 여론조사 비율의 가중치 산정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전

격 발표했다. 중재안은 ‘8월 20만명’인 현행안에서 선거인단수를 유권자 총수의 0.5%인 23만1천652명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 여론조사 반영비율과 관련해서는 국민투표율이 3분의2(67%)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3분의 2로 간주하고, 여론조사 반영비율의 가중치 산정에 적용토록 했다.

강 대표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박근혜 전 대표와 측근들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전 대표는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 “정권교체를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거부 방침을 시사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대전 연정국무문화관에서 열린 ‘한나라 충청포럼’ 특강을 통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자꾸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말했다. 박 전 대표 캠프는 중재안 거부 입장을 10일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이에 반해 이 전 시장은 이날 오후 “미흡하지만 일단 수용하겠다”고 밝혀 강 대표 중재안을 수용했다.

정칙권에서는 이번 강 대표의 경선 규칙 중재안이 박 전 대표측의 공식 거부로 무산되면 지도부 총사퇴론이 재연되면서 당 전체가 극심한 혼돈의 소용돌이로 빨려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어느 한쪽이 경선 불참 등을 선언한다면 한나라당이 사실상 분열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기자 tum@



31사단 부대 개방

육군 제31보병사단(사단장 서기원 소장)은 9일 부대 창설 52주년을 맞아 유치원생·독거노인 등 지역주민 700여명을 초청해 전투장비 전시·군악대 퍼레이드 등 다양한 부대 개방행사를 가졌다.

1955년 창설된 31사단은 대간첩작전 유공 등의 공로로 지금까지 14차례 대통령 부대 표창을 수상했다.

/나현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중부세 ‘눈독’... 지자체 반발

배분기준 변경 추진

정부가 ‘중부부동산세(이하 중부세)’를 모두 지방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던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중부세액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말박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현안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중부세액 가운데 지난 2005년 342억 원, 2006년 664억 원을 배분받아 일반 재원으로 사용했었으며, 광주시는 2006년에 428억원을 배분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자치단체들로는 전액 지방세수로 사용하던 중부세의 일부를 지원받지 못하게 돼 내년도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복지예산 비율이 전국최고인 전남도의 재정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부세액을 지원 받아왔던 광주·전남등 자치단체의 재

정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호남예술제 피아노 초등 3·4년 입상자 ▶20면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임총보실 062970-0114 ▶ T.062970-0011-9

세게로 일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임총보실 1588-5051 ▶ T.(061) 360-5000

IOPE

끈질긴 멜라닌 흔적에 아이오페 화이트젠 RXC 인텐티브 에센스

127

이나영의 멜라닌 지수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올라오는 멜라닌 고집을 꺾다

끈질기게 올라오는 기미·잡티, 멜라닌의 방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기미, 잡티는 불필요하게 과다 생성된 멜라닌이 축적이 쌓여있는 상태로 걸으면 멜라닌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큰 방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겉에서 지워도 밑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므로 피부 속을 바꿔주는 딥 화이트닝이 중요하다.

멜라닌 요오현상에 대응하도록 설계된 화이트캡슐 처방

보다 근원적인 화이트닝을 위해 아이오페가 새롭게 개발한 화이트 캡슐 처방은 피부 본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한다. 미백 효능 성분을 캡슐에 담아 피부 속 깊숙한 멜라닌까지 신속하게 전달, 멜라닌의 과다생성을 억제하고 멜라닌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하는 것. 강력한 햇빛에서도 하얗고 생기있는 빛을 유지하는 꽃다지 씨앗 추출물은 식물성분으로서 맑고 흰 효과를 도와준다. 동시에 강화된 수분 공급력은 착색함을 밀어내고 투명함과 화사함을 채워준다.

*멜라닌 지수(Melanin Index)란? 색차미터 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속 멜라닌 정도를 측정할 수지. 낮을수록 하얀피부를 뜻함.

멜라닌 지수 정말 낮아질까? 그녀들의 화이트닝 도전기를 확인하세요! 지금 12명의 도전자가 끝낸 멜라닌 지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페 피부과학 연구소와 함께하는 화이트닝 프로젝트를 확인하세요. www.iope.co.kr